

#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7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6.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293명 추가 확진으로 총 8,162명, 서울시 주말사이 23명 추가 확진, 총 254명
- 서울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 발생...지역사회 확산 차단위해 확진자·접촉자 관리 비상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3일만에 두 자릿수, "완치자가 더 많아졌다" 희망 준 첫 '골든 크로스'
- 집단감염 사태로 드러나 콜센터의 민낯, "콜센터·요양원, 취약층 방역체계 장기전 대비 필요"
- 전북 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통과...1인당 52만7천원
- WHO 사무총장, "유럽,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한국 등 공격적 진단과 조치 배울 점 많아
- '로봇이 발열감지...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살균, 발열감지, 운송등 자원로봇 3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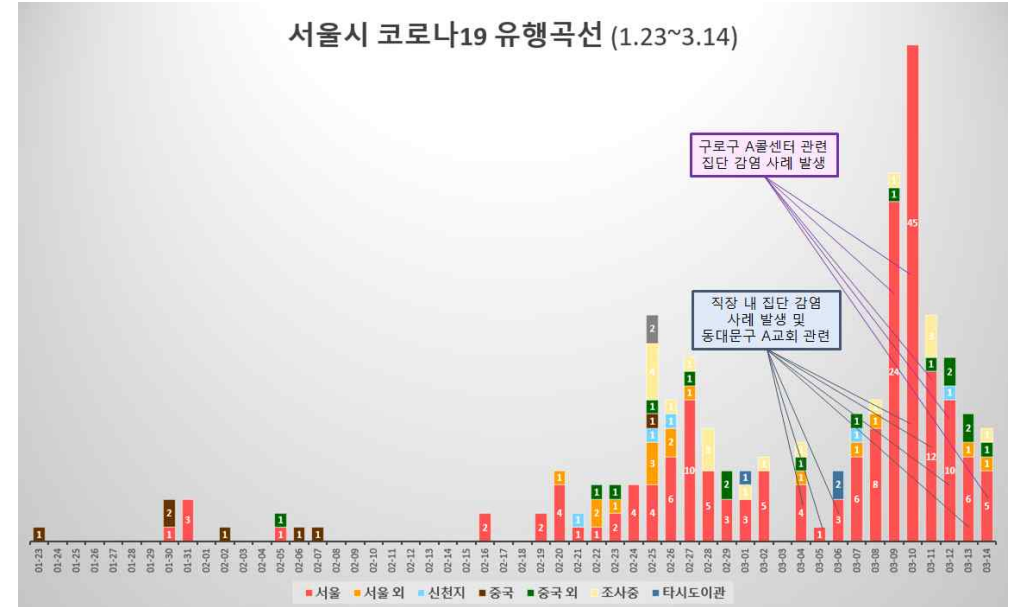
### 1. 발생 현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                    | 확진환자 현황 |       |      | 검사 현황 <sup>4)</sup> |        |         | 자가격리자 현황 |       |       |
|--------------------|---------|-------|------|---------------------|--------|---------|----------|-------|-------|
|                    | 확진자     | 사망자   | 격리해제 | 검사건수                | 검사중    | 결과음성    | 계        | 감시중   | 감시해제  |
| 서울시 <sup>1)</sup>  | 254     | 0     | 49   | 43,516              | 4,154  | 39,362  | 6,060    | 2,200 | 3,860 |
| 전 국 <sup>2)</sup>  | 8,162   | 75    | 834  | 260,050             | 16,272 | 243,778 | -        | -     | -     |
| 전 세계 <sup>3)</sup> | 156,478 | 5,823 | -    | -                   | -      | -       |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6. 0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5.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5.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23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254명
  - 입원(격리)환자 205명, 격리해제 49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247명(미발표 7명)
  - 3월 16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75명으로 치명률은 0.92%이며, 서울시는 사망자 없음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2020.3.16. 0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계  | 구로구 A 콜센터 관련 | 동대문구 D 교회 S PC방 관련 | 관악구 P 회사 관련 | 금천구 E 회사 관련 |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 서대문구 S 병원 관련 | 확진자와 접촉력 | 신천지 | 조사중 |
|---------|----|--------------|--------------------|-------------|-------------|-----------------|--------------|----------|-----|-----|
| 3.15(일) | 6  | 3            | -                  | -           | -           | -               | -            | 2        | -   | 1   |
| 3.14(토) | 8  | 2            | -                  | -           | -           | 1               | -            | 4        | -   | 1   |
| 3.13(금) | 9  | -            | 1                  | 3           | -           | 2               | -            | 3        | -   | -   |
| 3.12(목) | 13 | 4            | 3                  | 2           | -           | 2               | 1            | -        | 1   | -   |
| 3.11(수) | 16 | 8            | 3                  | -           | -           | 1               | 1            | -        | -   | 3   |
| 3.10(화) | 46 | 40           | 3                  | -           | 1           | 1               | 1            | -        | -   | -   |
| 3.9(월)  | 26 | 21           | -                  | -           | -           | 1               | 1            | 2        | -   | 1   |

- 최근 확진자들 중 해외 여행력(특히 유럽 또는 동남아)이 있는 경우가 많음, 중국 외 국가에서 역유입 되고 있음
- 영등포구 일가족 집단감염 발생(가족 4명 중 3명 양성) 감염경로 조사 중임, 가족 간 집단감염 사례가 최근 서울시 내에서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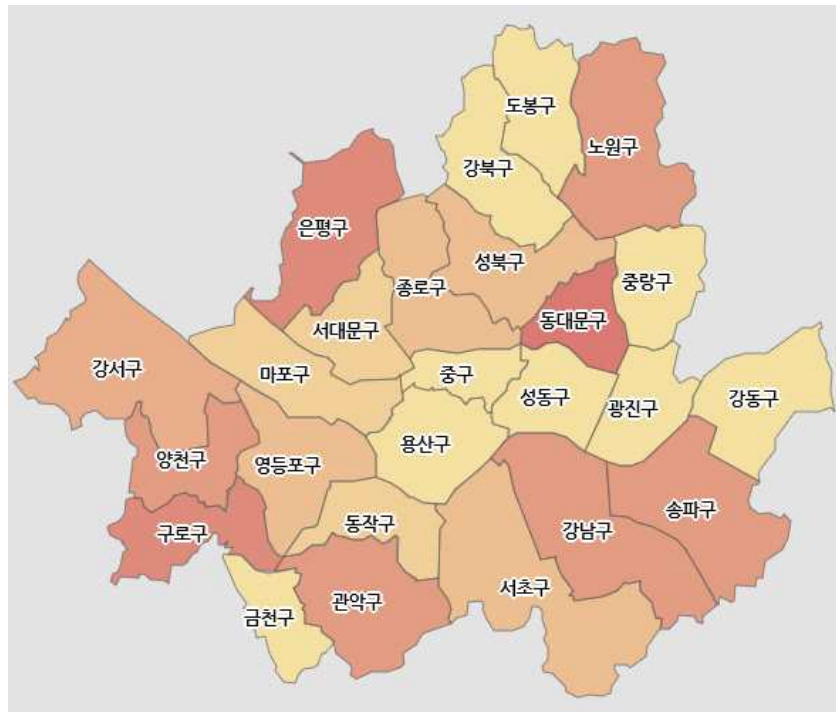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3월 16일 0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254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동대문22, 구로20, 은평17, 관악15, 송파15, 노원15, 양천14, 강남14, 강서14, 영등포12, 종로11, 성북9, 서초9, 마포8, 서대문6, 동작6, 중랑5, 강북5, 금천5, 강동5, 성동3, 용산2, 광진2, 도봉2, 중구1** 순으로 발생함. 기타17(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기타 | 계   |
|------|----|----|----|----|----|-----|----|----|----|----|----|----|-----|----|----|----|----|----|-----|----|----|----|----|----|----|----|-----|
| 누계   | 11 | 1  | 2  | 3  | 2  | 22  | 5  | 9  | 5  | 2  | 15 | 17 | 6   | 8  | 14 | 14 | 20 | 5  | 12  | 6  | 15 | 9  | 14 | 15 | 5  | 17 | 254 |
| 3/15 | -  | -  | -  | -  | -  | -   | -  | -  | -  | -  | 1  | 1  | -   | -  | -  | 1  | 2  | -  | 1   | -  | -  | -  | -  | -  | -  | -  | 6   |
| 3/14 | -  | -  | -  | -  | -  | -   | 1  | -  | -  | 1  | -  | -  | -   | 1  | -  | -  | 2  | -  | 2   | -  | -  | -  | 1  | -  | -  | -  | 8   |
| 3/13 | -  | -  | -  | -  | -  | 3   | -  | -  | -  | -  | 1  | -  | -   | 1  | -  | -  | -  | -  | 1   | 1  | 2  | -  | -  | -  | -  | -  | 9   |
| 3/12 | -  | -  | 1  | -  | -  | 2   | 1  | 1  | 1  | -  | 1  | -  | -   | -  | -  | -  | 2  | -  | -   | 1  | 1  | 1  | 1  | -  | -  | -  | 13  |
| 3/11 | -  | -  | -  | -  | -  | 2   | 1  | 2  | -  | -  | -  | 2  | 2   | 1  | -  | 3  | 2  | -  | -   | -  | -  | -  | -  | 1  | -  | -  | 16  |
| 3/10 | -  | -  | -  | -  | -  | 4   | -  | -  | -  | -  | 2  | 2  | -   | 4  | 7  | 4  | 5  | 1  | 5   | 3  | 8  | -  | -  | 1  | -  | -  | 46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5.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 합계 | 자치구 |                  |                |            | 의료기관 |       |       |        |       |
|----|-----|------------------|----------------|------------|------|-------|-------|--------|-------|
|    | 소계  | 보건소내             |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 소계   | 국가 지정 | 지역 거점 | 국공립 병원 | 민간 병원 |
| 91 | 52  | 39 <sup>1)</sup> | 9              | 4          | 39   | 5     | 6     | 7      | 21    |

1) (추가 1개소) 동작구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5.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 현황         |               | 세부현황             |           |         |
|------------|---------------|------------------|-----------|---------|
| 설치 (A+B+C) | 검체채취 가능 (A+B) | 보건소 내 (A)        | 보건소 외 (B) | 상담소 (C) |
| 48         | 42            | 39 <sup>1)</sup> | 3         | 6       |

1) (보건소 내 3개소 운영) 동작구 (1개구 총 3개소)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영등포, 서초, 강동구 (12개구 총 24개소)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광진, 도봉, 노원, 관악,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양천, 강서, 마포, 구로구 (12개구 총 12개소)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운영: 흥대, 서강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 코로나19 상담소 운영: (2개소) 광진구, (1개소) 중구, 금천, 동작,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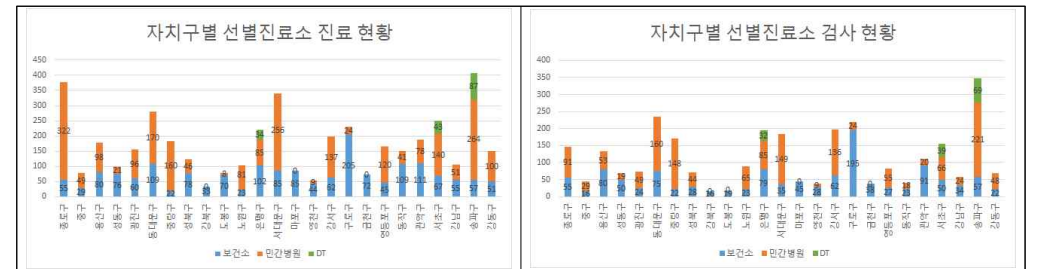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5.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 구분      | 진료    |        | 검체    |        | X-ray |       |
|---------|-------|--------|-------|--------|-------|-------|
|         | 계     | 누계     | 계     | 누계     | 계     | 누계    |
| 3.11(수) | 1,785 | 41,621 | 1,194 | 23,916 | 19    | 1,017 |
| 3.10(화) | 2,142 | 39,818 | 1,683 | 22,655 | 8     | 998   |
| 증감현황    | △357  | -      | △489  | -      | 11    | -     |

※ 누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가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임

- 의료방역반 현황 업데이트 자료가 3.11 이후 보고되지 않았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5.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 구분    | 진료      |        | 검체 검사   |        | 비고 |
|-------|---------|--------|---------|--------|----|
|       | 3.12(목) | 누계     | 3.12(목) | 누계     |    |
| 계     | 2,356   | 41,268 | 1,513   | 22,095 |    |
| 국가지정  | 365     | 7,740  | 183     | 3,670  |    |
| 지역거점  | 353     | 6,638  | 282     | 4,565  |    |
| 국공립병원 | 191     | 2,798  | 138     | 1,980  |    |
| 민간병원  | 1,447   | 24,092 | 910     | 11,880 |    |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의료방역반 현황 업데이트 자료가 3.12 이후 보고되지 않았음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5.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 구분     | 진료      |         |       | 검체 검사   |         |       | 비고     |
|--------|---------|---------|-------|---------|---------|-------|--------|
|        | 3.13(금) | 3.14(토) | 누계    | 3.13(금) | 3.14(토) | 누계    |        |
| 계      | 287     | 164     | 2,524 | 220     | 140     | 2,087 |        |
| 은평병원   | 22      | 34      | 385   | 22      | 32      | 367   | 3.3.개소 |
| 舊소방학교  | 53      | 43      | 502   | 34      | 39      | 326   | 3.3.개소 |
| 잠실주경기장 | 94      | 87      | 1,040 | 46      | 69      | 802   | 3.3.개소 |
| 이대서울병원 | 118     | -       | 597   | 118     | -       | 592   | 3.5.개소 |

※ 전일 18시 보고 이후의 건수는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됨

- 이대서울병원은 주말에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음. 향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주 단위 비교예정

국내 현황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합솔 주임연구원 / ☎ 02-2276-8793 (yeomhs@seoulmc.or.kr)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8,16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76명 추가)이며, 이 중 120명이 격리해제 보고됨.
- 사망자는 75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92%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8%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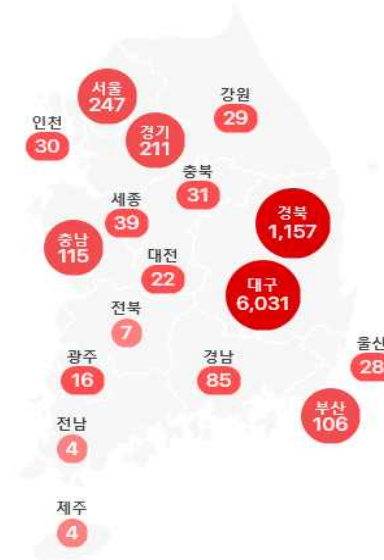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5,006명(61.3%)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5.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구분             | 총계           | 확진환자현황    |             |             |          | 검사현황           |                |              |
|----------------|--------------|-----------|-------------|-------------|----------|----------------|----------------|--------------|
|                |              | 계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계              | 검사 중           | 결과 음성        |
| 3.14.(토) 0시 기준 | 261,335      | 8,086     | 714         | 7,300       | 72       | 253,249        | 17,634         | 235,615      |
| 3.15.(일) 0시 기준 | 268,121      | 8,162     | 834         | 7,253       | 75       | 260,050        | 16,272         | 243,778      |
| 증감             | 6,877 (2.5%) | 76 (0.9%) | 120 (14.4%) | △47 (△0.6%) | 3 (4.0%) | △6,801 (△2.6%) | △1,362 (△8.4%) | 8,163 (3.3%) |

- 새롭게 확진된 환자 120명의 현황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격리 중  | 7,253 | 200 | 53  | 5,510 | 26 | 12 | 18 | 22 | 39 | 168 | 21 | 25 | 105 | 3  | 2  | 977   | 69 | 3  |
| 격리 해제 | 834   | 47  | 52  | 468   | 4  | 4  | 4  | 6  | -  | 40  | 7  | 6  | 10  | 4  | 2  | 163   | 16 | 1  |
| 사망    | 75    | -   | 1   | 53    | -  | -  | -  | -  | -  | 3   | 1  | -  | -   | -  | -  | 17    | -  | -  |
| 합계    | 8,162 | 247 | 106 | 6,031 | 30 | 16 | 22 | 28 | 39 | 211 | 29 | 31 | 115 | 7  | 4  | 1,157 | 85 | 4  |
| 증감    | 76    | 9   | 3   | 41    | 2  | 1  | -  | 1  | 1  | 11  | -  | 3  | -   | -  | -  | 4     | -  | -  |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5.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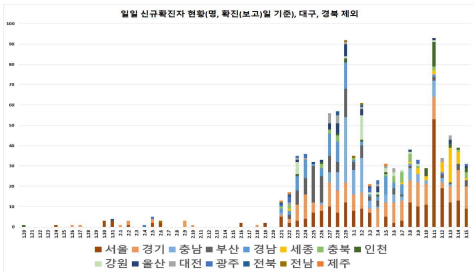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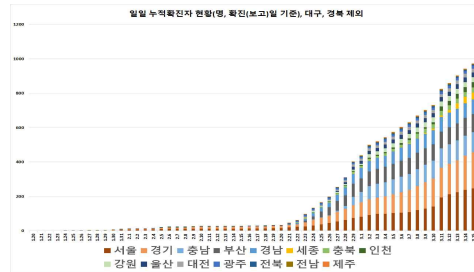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8,162명(전일 0시 기준 76명 추가)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보고됨.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확진자 현황 (2020.3.15.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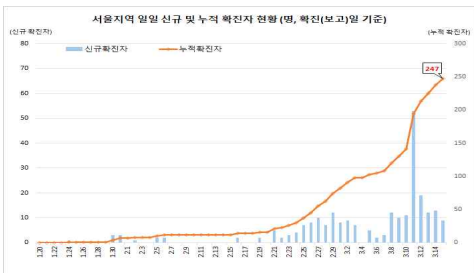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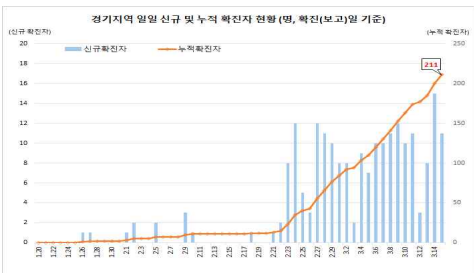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각종 사업장과 종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에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 서울·경기에서는 수도권 내 최대 감염 사례인 구로구콜센터와 관련하여 총 124명 확진 파악됨(직원 85명(11층 82명, 10층 2명, 9층 1명), 가족·접촉자 39명).

- 서울/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2020.3.15. 00:00 기준)



서울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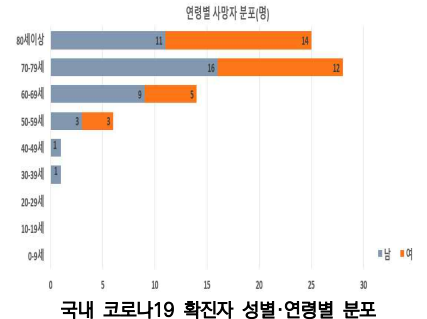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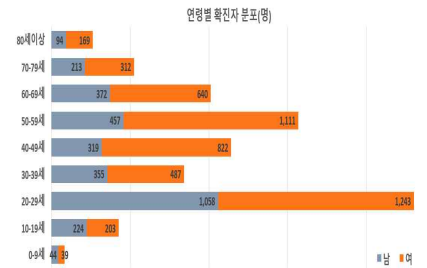
경기지역 일별 확진자 현황

- \* 서울지역의 경우, 구로구콜센터에 이어 동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24명 확진 파악됨(동안교회→세븐PC방→가족→요양보호사→산후조리원 등 18명 확진).
- \* 경기지역의 경우, 구로구콜센터 확진자의 종교활동에 의한 2-3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소재 부천생명수교회 13명 확진 파악됨(부천하나요양병원, 꿈다리아린이집, KB손해보험 상동 콜센터).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5.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 구분 | 확진자    | (%)     | 사망     | (%)     | 치명률(%) |      |
|----|--------|---------|--------|---------|--------|------|
| 계  | 8,162  | (100.0) | 75     | (100.0) | 0.92   |      |
| 성별 | 남성     | 3,136   | (38.4) | 41      | (54.7) | 1.31 |
|    | 여성     | 5,026   | (61.6) | 34      | (45.3) | 0.68 |
| 연령 | 80세 이상 | 263     | (3.2)  | 25      | (33.3) | 9.51 |
|    | 70-79  | 525     | (6.4)  | 28      | (37.3) | 5.33 |
|    | 60-69  | 1,012   | (12.4) | 14      | (18.7) | 1.38 |
|    | 50-59  | 1,568   | (19.2) | 6       | (8.0)  | 0.38 |
|    | 40-49  | 1,141   | (14.0) | 1       | (1.3)  | 0.09 |
|    | 30-39  | 842     | (10.3) | 1       | (1.3)  | 0.12 |
|    | 20-29  | 2,301   | (28.2) | 0       | (0.0)  | -    |
|    | 10-19  | 427     | (5.2)  | 0       | (0.0)  | -    |
|    | 0-9    | 83      | (1.0)  | 0       | (0.0)  | -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8,162명, 사망자는 75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92%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5,026명(61.6%)으로 남성 3,136명(38.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41명(54.7%)으로 여성 34명(45.3%)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3,136명의 확진자 중 41명이 숨진 남성에서 1.31%로 여성 0.68%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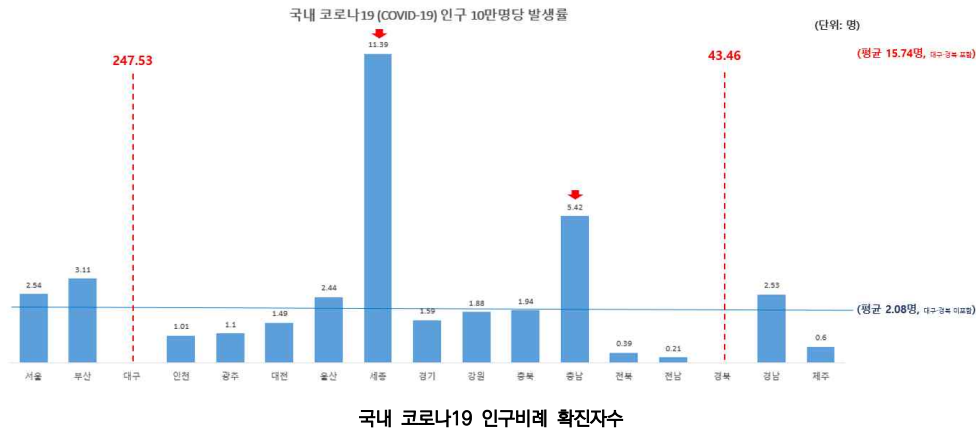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301명(2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568명(19.2%), 40대 1,141명(14.0%), 60대 1,012명(12.4%)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67명(89.3%)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63명의 확진자 중 25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9.51%, 70대가 5.33%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2020.3.15. 00:00 기준)

| 지역         | 확진자수         | (%)            | 사망자       | 치명률         | 발병률          | 지역 | 확진자수  | (%)     | 사망자 | 치명률  | 발병률   |
|------------|--------------|----------------|-----------|-------------|--------------|----|-------|---------|-----|------|-------|
| 서울         | 247          | (3.03)         |           |             | 2.18         | 경기 | 211   | (2.59)  | 3   | 0.56 | 1.34  |
| 부산         | 106          | (1.30)         | 1         |             | 2.90         | 강원 | 29    | (0.36)  | 1   | 3.45 | 1.88  |
| 대구         | 6,031        | (73.89)        | 53        | 0.82        | 240.80       | 충북 | 31    | (0.38)  |     |      | 1.69  |
| 인천         | 30           | (0.37)         |           |             | 0.85         | 충남 | 115   | (1.41)  |     |      | 5.37  |
| 광주         | 16           | (0.20)         |           |             | 1.03         | 전북 | 7     | (0.09)  |     |      | 0.39  |
| 대전         | 22           | (0.27)         |           |             | 1.36         | 전남 | 4     | (0.05)  |     |      | 0.21  |
| 울산         | 28           | (0.34)         |           |             | 2.18         | 경북 | 1,157 | (14.18) | 17  | 1.40 | 42.93 |
| 세종         | 39           | (0.48)         |           |             | 4.38         | 경남 | 85    | (1.04)  |     |      | 2.53  |
|            |              |                |           |             |              | 제주 | 4     | (0.05)  |     |      | 0.60  |
| <b>총합계</b> | <b>8,162</b> | <b>(100.0)</b> | <b>75</b> | <b>0.92</b> | <b>15.74</b> |    |       |         |     |      |       |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해외 현황

작성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이주희 주임연구원/ ☎ 02-2276-8794 (ijh4776@seoulmc.or.kr)

● 전 세계 발생 현황

- 9,87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44,283명으로 보고됨.
- 이 중 5,665명(349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93%(전일 3.96%)로 확인됨.

| 국가 및 지역 | 확진자 수   | 사망자 수 | 치명률  | 발병률  |
|---------|---------|-------|------|------|
| 전 세계    | 142,539 | 5,393 | 3.78 | 1.84 |
| 중국      | 81,021  | 3,194 | 3.95 | 5.64 |
| 중국 외 국가 | 61,518  | 2,199 | 3.57 | 0.97 |
| 서태평양    | 9,612   | 98    | 1.02 |      |
| 유럽      | 36,271  | 1,402 | 3.87 |      |
| 동남아시아   | 246     | 6     | 2.44 |      |
| 중동      | 8,584   | 300   | 3.49 |      |
| 아메리카    | 964     | 28    | 2.90 |      |
| 아프리카    | 73      | 2     | 2.74 |      |

| No. | 국가 및 지역 | 확진자 수  | 사망자 수 | 치명률  | 발병률   |
|-----|---------|--------|-------|------|-------|
| 1   | 이탈리아    | 21,157 | 1,441 | 6.81 | 35.01 |
| 2   | 이란      | 12,729 | 611   | 4.80 | 15.56 |
| 3   | 중국      | 80,844 | 3,199 | 3.96 | 5.80  |
| 4   | 일본      | 780    | 22    | 2.82 | 0.62  |
| 5   | 스페인     | 3,795  | 136   | 2.36 | 12.31 |
| 6   | 프랑스     | 4,499  | 91    | 2.02 | 6.72  |
| 7   | 미국      | 2,726  | 54    | 1.95 | 0.83  |
| 8   | 네덜란드    | 804    | 10    | 1.24 | 4.67  |
| 9   | 스위스     | 1,189  | 11    | 0.93 | 13.96 |
| 10  | 한국      | 8,162  | 75    | 0.72 | 15.81 |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5.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이탈리아, 이란과 반대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이나 최근의 이탈리아가 시민들을 가두어 놓는 반면 한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대구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았음. 이탈리아의 치명률,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치명률은 0.72% 한국 - 감염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역에 초점을 맞춰 공공행사를 피하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실천하도록 권고함.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감염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함. (출처) SCMP 202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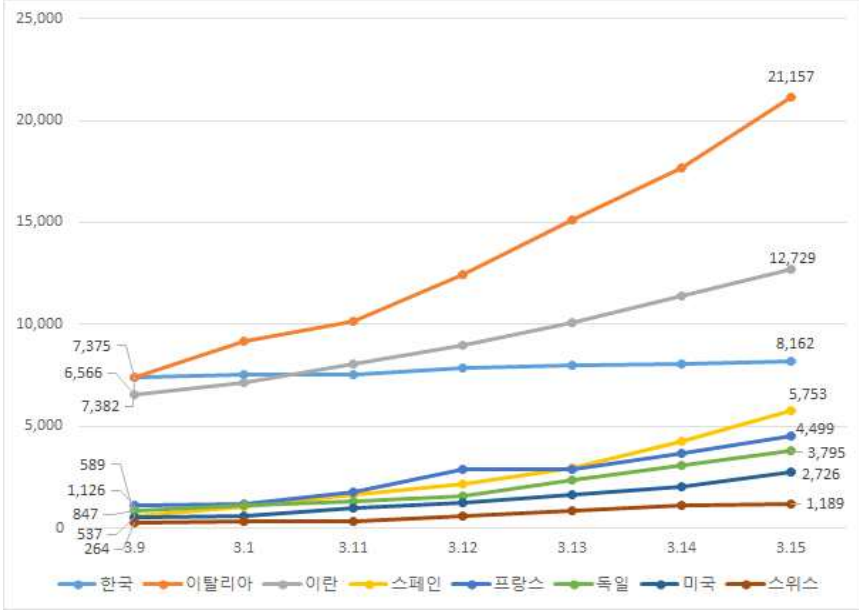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1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61,518명(전일 대비 9,751명 추가, 18.8%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2,199명(전일 대비 424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3.57%(전일 3.39%)확인됨.

| 국가    | 확진자 수   |         |         |          |         |         |         | 누적 사망자 수 |
|-------|---------|---------|---------|----------|---------|---------|---------|----------|
|       | 3.9     | 3.10    | 3.11    | 3.12     | 3.13    | 3.14    | 3.15    |          |
| 이탈리아  | 7,375   | 9,172   | 10,149  | 12,462   | 15,113  | 17,660  | 21,157  | 1,441    |
| 이란    | 6,566   | 7,161   | 8,042   | 9,000    | 10,075  | 11,364  | 12,729  | 611      |
| 스페인   | 589     | 1,024   | 1,639   | 2,140    | 2,965   | 4,231   | 5,753   | 136      |
| 프랑스   | 1,126   | 1,191   | 1,784   | 2,281    | 2,876   | 3,661   | 4,499   | 91       |
| 독일    | 847     | 1,139   | 1,296   | 1,567    | 2,369   | 3,062   | 3,795   | 8        |
| 미국    | 537     | 605     | 959     | 1,220    | 1,663   | 2,034   | 2,726   | 54       |
| 스위스   | 264     | 332     | 332     | 613      | 858     | 1,125   | 1,189   | 11       |
| 중국가수  | 96      | 99      | 103     | 107      | 110     | 114     | 123     |          |
| 총환자수  | 101,780 | 105,687 | 109,915 | 116,3087 | 125,234 | 134,405 | 144,283 |          |
| 총사망자수 | 3,758   | 3,939   | 4,224   | 4,548    | 4,884   | 5,316   | 5,665   |          |



● **중국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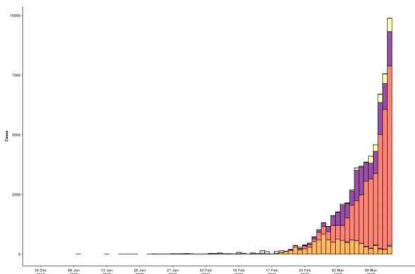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844명(전일 대비 20명 추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3,199명 (전일 대비 10명 추가)으로 치명률 3.96%로 확인됨.
- \* 코로나19 역유입 비상
- 20명 증가인원 중 후베이성 4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임.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5.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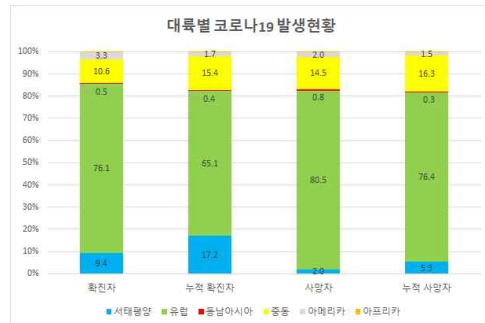
| 구분             | 확진자수   | 사망자수  |
|----------------|--------|-------|
| 3.14.(토) 9시 기준 | 80,824 | 3,189 |
| 3.15.(일) 9시 기준 | 80,844 | 3,199 |
| 증감             | 20     | 10    |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1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지역         | 인구수 (10,000s)  | 일일현황      |           |           | 누적현황          |              |
|------------|----------------|-----------|-----------|-----------|---------------|--------------|
|            |                | 확진 환자 수   | 의심 환자 수   | 사망자 수     | 확진 환자 수       | 사망자 수        |
| 후베이성       | 5,917          | 4         | 0         | 13        | 67,790        | 3,075        |
| 광둥성        | 11,346         | 0         | 0         | 0         | 1,356         | 8            |
| 허난성        | 9,605          | 0         | 0         | 0         | 1,273         | 22           |
| 저장성        | 5,737          | 0         | 0         | 0         | 1,227         | 1            |
| 후난성        | 6,899          | 0         | 0         | 0         | 1,018         | 4            |
| 베이징        | 2,154          | 1         | 5         | 0         | 437           | 8            |
| 상하이        | 2424           | 4         | 11        | 0         | 350           | 3            |
| 홍콩         | 745            | 6         | 0         | 1         | 137           | 4            |
| 대만         | 2359           | 1         | 0         | 0         | 50            | 1            |
| 마카오        | 66             | 0         | 0         | 0         | 10            | 0            |
| 기타         | 103,995        | 2         | 1         | 0         | 7,373         | 68           |
| <b>총 합</b> | <b>148,823</b> | <b>18</b> | <b>17</b> | <b>14</b> | <b>81,021</b> | <b>3,194</b> |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14.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2. 정책 동향

###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정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로봇이 발열감지...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지원로봇 도입

- 서울의료원 ▲ 음압병상 살균 ▲ 발열감지 ▲ 의료폐기물 운송 3종 6대 로봇 운영
  - \* 의료지원 로봇 3종은 ▲살균로봇 ▲발열감지로봇 ▲운송로봇이다. 각 2대씩 총 6대가 운영
  - \* 도입의 취지는 코로나19 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호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 로봇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 중앙-지방 간 협력 사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 종식까지 무상 임대...12일 3주간 업무협약
  - \*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문전일), 서울의료원(원장 직무대행 표창해)과 12일(목) 의료지원 로봇 도입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서울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
  - \* 세 기관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로봇 기술의 선제적 도입 ▲의료종사자 지원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공동 수집 및 분석 ▲로봇 및 스마트 솔루션 도입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
-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최 일선 의료진 안전 보호 및 업무 경감 효과 기대

| 구분  | 살균로봇  | 발열감지 로봇   | 운송로봇   |
|-----|---|---|--|
| 이미지 |    |  |  |
| 기능  | UV살균 및 공기흡입살균   | 비대면 발열 진단   | 대상추출 기능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바이러스 99.99% 살균</li> <li>· 약품 살포식이 아닌 UV LED 사용</li> <li>· 이동형 로봇으로 사각지대가 없음</li> </ul> | 방문객을 추종해 비대면 자가측정을 유도하고 이상 발열 감지 시 대응조치 방법 안내                                     | 실내 운송 지원 로봇으로 의료인 및 확진자의 의복 및 의료폐기물 등 운송   |

#### ●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코로나19 생활치료 센터로 운영

- 3월 16일(월)부터 운영, 확진자 중 경증환자 최대 210명 입소 가능
  -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3.1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선수촌’을 활용하여 운영을 시작
  - \* 입소대상은 경증 및 무증상 환자. 만성 기저질환과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이식환자 등 고위험군 입소불가
- 보라매병원과 함께 의료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등 총 53명 투입
  - \* 센터에는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간호사 18명의 의료진과 서울시 직원 등 53명 배치
  - \* 배치인력은 센터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주기적 의료상담관리 등 필요 의료서비스 제공예정
- 선수촌 시설 사전 방역 소독 및 의무실 설치, 방호복 등 의료물품 확보

#### ●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직원 자발적 참여 ‘2차 사랑의 헌혈’

- 3.13.(금) 서울광장서, 서울시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
  - \* 코로나19 국내 유행으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혈액수급 약화로 2월 17일(월) 한 차례 헌혈행사를 추진(200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혈액수급난 해소에 서울시가 적극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한 달여 만에 헌혈행사 추가로 추진
  - \* 헌혈 행사는 서울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

#### ● 서울시, 쪽방촌 전 세대에 긴급 구호품 지원

-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쪽방촌 3,085세대 긴급 구호품 전달
- 긴급구호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장조림, 참치캔, 즉석밥 등)등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쪽방촌 재난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돕는다
- 13일 10시30분 긴급구호품 포장작업 시작해 12시30분부터 쪽방촌 전달

#### 쪽방촌 긴급구호품 지원 계획

1. 행사명 : 서울시내 쪽방촌 재난취약계층 긴급구호품 지원
2. 일시 : 2020. 3. 13(금) 10:30 / 12:30
3. 장소 : 긴급구호품 포장작업 - 양천구 중앙로 345 긴급구호종합센터  
긴급구호품 전달 -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쪽방촌상담센터 앞
4. 지원대상 : 서울시내 쪽방촌 재난취약계층 전 세대(3,085세대)
5. 지원물품 : 보건·위생용품(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장조림, 참치캔, 양념김, 즉석카레, 사골곰탕, 즉석밥, 즉석미역국, 된장찌개, 프레스햄, 볶음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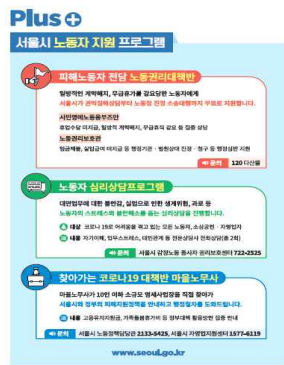


####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든 임신부에 마스크 총20만매 지급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약 4만 명의 모든 임신부에게 1인당 5매씩, 총20만 매의 마스크를 지급함
- 서울시는 감염 고위험군이며 약물 치료에 제한을 받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지급한다고 밝힘
- 현재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임신부의 경우 외출 자체가 조심스럽고 장시간 줄을 서기 힘들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임신부가 많은 자치구부터 기 확보된 물량 5만부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 25개 전 자치구에 배부를 완료할 계획임
  - \* 강북, 강남, 성동, 양천, 광진구 등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후순위로 배부
- 마스크는 16일(월)부터 자치구로 순차 배송되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확인 후 수령 가능, 대리 수령도 가능함
  - \*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배부, 구제적 지급시기, 방법 등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됨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 피해노동자 '상담~구제절차안내~행정소송 대행',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 가동
  - \* 코로나19로 피해 노동자를 전담 전문가그룹의 상담과 맞춤형 구제방안 제안
  - \*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 가동이 핵심
  - \* 불합리한 처우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등 노무사+변호사 투입 밀착 구제
  - \* 공인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 \* 피해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 신청 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50명)'이 구제절차를 1대 1로 전담해 구제절차, 사후처리 방법을 안내
  - \* 필요 시 행정소송 무료로 대행. 변호 등 소요비용(30~200만원) 서울시 부담.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동자임
  - \* 이외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코로나 19 피해를 포함, 일터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를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 홈페이지(www.labors.or.kr), 전화(376-0001)로 안내(운영시간 10시~17시)
- 서울시, 피해노동자 심리상담, 이동노동자에게 마스크 배부 등 체감형 지원 진행 중
  - \* 지난 5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 압박감 등 스트레스 노출 노동자 대상 심리상담 실시
  - \* 대면업무가 대부분인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약 4만 6천장 배부
- 영세자영업자 지원위한 '마을노무사'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 혜택 적극 안내
  - \*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찾아가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 필요시 서류작성 등의 행정절차 대행



●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중국 각지에서 자원과 응원의 손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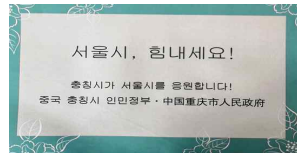
- 중국의 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7개 도시, 주한중국대사관, 기업에서 마스크 등 총 38만여 점의 방역물품을 서울시에 기증했거나 기증 예정
  - \* 주한중국대사관, 베이징산동성성충칭사쓰촨성 등 7개 도시, 푸싱그룹 기증했거나 의사 밝혀와
  - \* 마스크 19만5,510점과 의료용 방호복 등 방역물품 18만5,200점
- 서울시, 중국에서 온 방역물품을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사용 예정
  - \* 마스크는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거주자 등 감염취약계층과 이동노동자, 콜센터 같은 감염취약 직업군 종사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
  - \* 의료용 방역물품은 선별진료소, 보건소에 근무 의료진이 사용 할 계획



주한중국대사관



岁寒松柏 长母相忘 (세한송백, 장무상망) 추위에도 의연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오래도록 서로의 우정을 잊지 말자



서울시, 힘내세요! 충청시가 서울시를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

●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시작(3월 13일부터)
  - \* 붙임2.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현황 참고
-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병상을 소개(疏開)하여 중증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 현재 처음 목표(1만 병상)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
  - \* 중증증 환자 : 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 확보가능 병상은 약 7,207개, 확보된 병상은 5,725개로,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 (3.12.기준)
- 감염병전담병원(69개소) 자원예산은 총 390억원. 적극적인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
  - \*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 \*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 추진
- 병원소개로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일부 손실보상 시행방안 검토 예정

●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 14일(토)부터 청사 내부 동 간 연결통로 및 옥상 정원을 완전 차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입주부처 및 보건당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함
  -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월 23일(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직후에 정부청사「코로나19」대책반을 설치
  - \* 세종청사 등 전국 11개 청사에 열화상 카메라 운용 및 방역 강화, 어린이집 휴원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시 중지한 바 있음
-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요령을 부처에 전파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청사관리본부-부처-보건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출입통제, 긴급방역 및 해당 부서 근무자 격리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 \* 또한,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조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CCTV 및 출입 시스템을 통한 동선파악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 3월 13일(금)에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청사 인근에 승차 검진 방식의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진단검사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검체채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지난 3월 11일(수)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운영(48대→69대, 세종 31대)하고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만면인식의 출입방식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청사 속도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운동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이용, 식사 시 한쪽 방향 앉기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부처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밀집 근무 상황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

- 인사혁신처는 공식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3월 12일(목) 시행함
-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임
  - \*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함
  - \* 재택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 GVPN: 공무원들이 사무실 외 장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무실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아울러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함
- 출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건관리자가 1일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게 보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함

### ●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을 점검함
  - \* 생활지원: 가구원이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비 지원
  - \* 긴급돌봄: 보호자가 입원 또는 시설 격리된 경우 남겨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 제공
- 대구·경북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현황은 3월 13일(금) 현재 1,772건(전국 5,050건)으로 이 중 대구는 982건, 경북은 790건임
  - \* 생활지원비 1,713건(대구970, 경북743), 유급휴가비 59건(대구 12, 경북47)
  - \* 생활지원비: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 원 지원
  -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 원 지원
  - \* 생활지원비(읍·면·동 신청) 및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신청)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
- 정부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돌봄 전달체계를 구축 한 바 있음
  -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 지침」 시행(20. 2. 21)을 통해 읍·면·동에서 격리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
  - \*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돌봄에서는 기존 서비스 선정기준(소득·재산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연계·제공
  - \* 3월 13일(금) 기준 지원실적은 총 164건으로, 대구·경북 98건, 부산 64건, 서울 1건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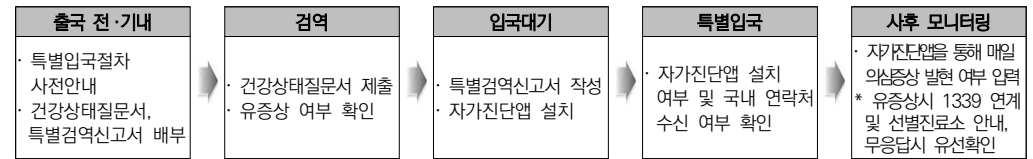
| 구 분 |       | 지원내용  |
|-----|-------|---|
| 아동  | 식사 지원 | · 도시락배달, 급식바우처 지원                           |
|     | 돌봄 지원 |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  |
|     |       | · 등·하원(등·학교) 지원<br>·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 |
| 노인  | 돌봄 지원 | 인부 확인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 식료품 키트(kit) 등     |
|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가사서비스(식사 지원, 청소관리 등)        |
|     | 식사 지원 | ·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
| 장애인 | 활동 지원 | ·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자가격리자, 보호자 격리 수급자) |
|     |       | ·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와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봉사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및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 (3.1.~3.11. 1차 모집) 386명 자원(自願), 인·적성검사 및 면접 통해 100명 선발, 투입 대기 중
-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5개소)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을 지원
  - \* 장애인거주시설 30명, 노숙인시설 5명, 장애인지역공동체 6명, 노숙인자활시설 1명, 한빛지역아동센터 1명
- 간호인력 확진으로 간병 공백이 발생한 병원(2개소)에 3월 12일부터 돌봄인력(간병사) 9명을 지원, 아동·노인 등 돌봄 공백자 83명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70명을 투입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 정부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
  - \* 중국(2. 4.), 홍콩·마카오(2. 12.), 일본(3. 9.), 이탈리아·이란(3. 12.),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3. 15.)
-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하였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함
  - \*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
  - \*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
  - \*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
  - \*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

#### 특별입국관리 절차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함
-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등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아울러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 ● 신청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0일(화) 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청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全數) 진단검사 계획을 추가 발표함
  - \* (대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청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계획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 이번 대상은 행정조사(3월 5일) 자료(직업정보 등)를 분석(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29만 명), 어린이집(약 29만 2000명), 유치원(약 5만 6000명)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약 3만 8000명) 등 총 67만 7000명의 종사자 대상
  - 신청지 신도 및 교육생은 4,128명을 파악하고, 이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신도 867명, 교육생 99명)을 제외한 신도(2,564명) 및 교육생(598명) 선별한 결과임
    - \*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생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결핵·한센시설, 한부모생활시설, 청소년생활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3,162명 모든 종사자가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서 발생하고,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는 2달 가까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중국발 감염병”이었던 것이 한 달여 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고, 2020년 3월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 수와 누적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117개국에서 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66개 국가에서 지역 감염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월 12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선포하였다.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중국에서는 초기에 우한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이동제한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수의 모델링 연구에서 1개 시 또는 국가에 대한 봉쇄 조치는 확진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전파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유행을 감소시키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행하는 전국에 대한 이동제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의 추정은 연구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5~7월로 추정한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사회에서 전염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총 확진자의 수는 감소함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은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시스템이 늘어나는 확진자의 치료를 감당할 수 있게 하며 사망률을 낮추게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확진자가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1보다 크면 유행이 발생)를 2.2로 추정하고 있어, 사회의 노력이 없다면 질병의 유행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감염질환의 재생산 수는 확진자가 1회 접촉 시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 확진자가 미감염자와 접촉하는 횟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와 미감염자의 접촉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80%는 증상이 매우 가벼우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확진자 및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와 동시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밀집 공간을 피하고 집에 머무르며 대면 접촉을 줄이고, 대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전염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개학 연기, 재택근무, 행사 취소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이다. 확진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 수가 많은 경우 이들의 접촉자를 모두 확인하여 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나의 보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이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까지 하였다. 지난 2주간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이를 시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콜센터 등 일부 사업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사례이다.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업장/사업주와 사회 전체의 뒷받침,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노력하는 것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접촉 시 감염을 전파시킬 확률을 낮추어 준다. 바꾸어 말하자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즉 집에서 지내거나, 혼자 차량을 운전할 때, 한산한 거리를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인간에서 처음 발생하여 그 특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추정은 피로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검사의 적극적 시행과 확진자에 대한 격리/치료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의료진,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인류가 처음으로 조절 가능한 감염병” 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의 유행을 잘 극복해왔고,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도 전 세계의 선도에 나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Nowcasting and forecasting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read of the 2019-nCoV outbreak originating in Wuhan, China: a modelling study. Lancet 2020; 395: 689-97
2. The effect of travel restrictions on the spread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Science 2020; pii: eaba9757. doi: 10.1126/science.aba9757.
3. How will country-based mitigation measures influence the course of the COVID-19 epidemic? Lancet 2020; doi: 10.1016/S0140-6736(20)30567-5
4. Covid-19 — Navigating the Uncharted. N Engl J Med. 2020. doi: 10.1056/NEJMe2002387.

Health Policy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627-9](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627-9)

**COVID-19 and Italy : what next?  
코로나19와 이탈리아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drea Remuzzi, Giuseppe Remuzzi

**○ 이탈리아 현황 자료**

- 현 황: 3월 11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 기준날짜   | 확진자수    | 사망자수 | 평균사망자연령 | 사망자 특성                     |
|--------|---------|------|---------|----------------------------|
| 3월 11일 | 12,462명 | 827명 | 81세     | 기저질환 보유자비율 66%,<br>남성비율80% |

- 정책시행: 3월 8일 이탈리아 정부는 Lombardy 지역 내 이동제한명령을 내렸으며 9일 전국적 이동제한 경보 발령
- 의료자원: 현재까지 총 5,200개 집중치료 병상 보유하고 있고 이중 1,028병상을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사용하고 있음. 가까운 시일 내 수천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 보건의로 인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20%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일부 사망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예상 증가 추이**

-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월 21일 이후 확진자 증가 추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지수함수)
- 3월 15일 최소 3만 명 이상의 환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감염의 재생산수를 2.76~3.25로 가정하였을 때 기준
- 이러한 추세가 1주일 이상 지속된다 가정하였을 경우, 4월 중순경 최대 4천명이 집중치료를 필요로 할 것
- 3월 1일에서 3월 11일까지 조사된 확진자중 집중치료 필요자 비율(9~11%)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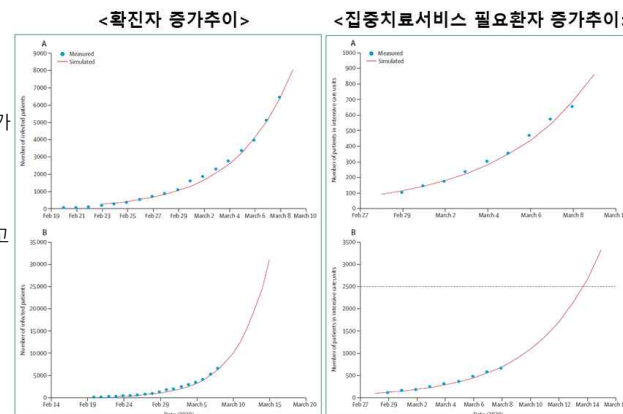


Figure 1: Measured and predicted number of patients reported to be infected in Italy using an exponential curve. Panel A shows number of infections in previous days and B shows projections for the coming days. Figure 2: Measured and predicted number of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s in Italy using an exponential curve. Panel A shows number of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s in previous days and B shows projections for the coming days. The dotted line represents the estimated capacity of intensive care beds in Italy.

**○ 문제점: 코로나19 집중치료 환자수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 붕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현 의료자원 수준으로는 3월 중순경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탈리아 보건의료체계 역량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
- 3월 11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5,200개 병상 중 50%가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쓰인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함
- 코로나19 환자 이외에 집중치료가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 또한 의료서비스 보장권을 침해받게 될 것
- 증가추이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건의로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대적 사회적 문제로 악화될 것

**○ 결론: 이탈리아 Lombardy 지역은 일주일 내 추가적인 2,500개 이상의 집중치료 병상과, 그에 따른 의료인력, 병상수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함**

- 이탈리아 확진자 추이가 지수함수 형태로 매우 빠르게 급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준 Lombardy지역은 일주일 내 최소한 추가적 2,500개 이상의 집중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2만 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5천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를 병원에 공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의 방향성은 맞으나, 빠른 시일 내 자원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사망자 속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임. 필요한 인력수, 병상 자원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력과 일반 시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

### 3. 주요 뉴스

#### 발생·치료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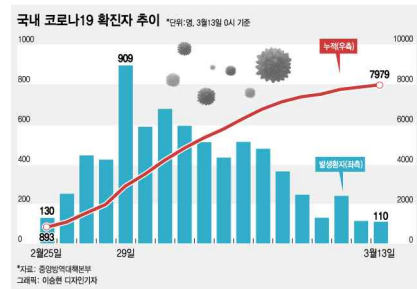
####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76명 늘어 8162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16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0시 대비 76명이 추가됐다. 하루 사이 증가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3일 만이다. 새 확진자 76명 중 45명(59.2%)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41명, 경북 4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의 영향으로 22명의 확진자(서울 9명, 경기 11명, 인천 2명)가 추가됐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 3명, 광주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충북 3명 등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총 75명이며 완치로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20명이 추가돼 총 834명이다. 코로나19 검사 중인 사람은 1만6272명으로 전날에 비해 1362명 감소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1016001&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1016001&code=940601))

#### ● "완치자가 더 많아졌다" 첫 '골든 크로스'가 준 희망

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의 수를 넘어섰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격리환자는 전일 대비 68명 감소해 7402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 증가했고, 완치자 수는 177명이 늘었다. 하지만 환자 관리를 주관하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를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서울시 구로구 소재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같은 층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등 109명이 대거 감염됐다.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신도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 31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진의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마스크 공급을 44% 늘리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 분포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며 "부족함이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v.daum.net/v/20200314050003656>)

#### ● 중증·위중 환자 어느새 93명..났었던 한국 치명률 높아지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산소마스크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이상 환자가 90명을 넘어섰다. 치명률도 방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이래 가장 높은 0.84%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방역과 보건 당국이 유지해 온 환자 치료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함께 사는 집단시설 의료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증 이상 환자 증가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달 1~3일 13~18명이었던 중증 환자는 이후 4~10일 23~27명으로 20명대에서 30명을 넘어섰다. 치명률도 방대본이 처음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달 2일에는 0.52%(4212명 중 22명)였으나 11일 0.77%(7755명 중 60명)에 이어 12일 0.8%대를 넘어섰다. 특히 80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이 8%대(8.23%)로 집계됐다. 치료제가 없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단한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13043153243>)

#### ● '코로나19' 유행 상위 17개국 모두 '추운 나라', "진짜 기후 영향받나"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기후 영향을 받는 정황이 나타나 주목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커지면서 관련 윤곽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뉴스1>이 분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 상위 1~17위에는 모두 우리나라와 같은 겨울 혹은 초봄인 나라들이 속했다. 반면 더운 날씨 국가들은 후순위에 포진됐다. 물론 이러한 기후 요소가 '코로나19' 확산에 절대적인지 알지만 부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 날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전 메르스 즉각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는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는 체내 온도 37도 전후에서도 사람을 숙주세포로 삼아 잘 살 수 있지만 체외로 나가면 숙주가 없어 생존기간이 짧다"며 "현재 국내 환경에선 며칠동안 살 수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 관련한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논문을 보면 고온다습 환경에선 생존기간이 하루이틀로 상당히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15060018610>)

####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드러난 콜센터의 민낯

콜센터가 '지역 감염'의 진앙이 되는 것 아니냐는 끊임 없는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마스크를 쓰기 힘든 업무 방식,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큰 요인 중 하나다. '노동 통제'나 다름없는 업무관리 방식으로 재택근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로 집단 감염 발생 후에도 재택근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 이들의 '취약한 노동 지위'를 꼽는다. 전체 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66.5%에 달하고, 대개 최저임금에 맞춰진 기본급에 1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나 근속 수당을 받으며 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노동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력단절 여성 등 비숙련자에게는 급여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BBC뉴스코리아(<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867202>)

#### 주요국 코로나19 감염 정도 (14일 기준)

| 국가   | 인구           | 확진자      |          | 사망자      |          | 10만명당 확진자 |          | 100만명당 사망자 |    |
|------|--------------|----------|----------|----------|----------|-----------|----------|------------|----|
|      |              | 3월14일 순위 | 3월14일 순위 | 3월14일 순위 | 3월14일 순위 | 3월14일 순위  | 3월14일 순위 |            |    |
| 중국   | 14억3932만3776 | 80971    | 1        | 3193     | 1        | 5.6       | 6        | 22.2       | 4  |
| 이탈리아 | 6046만1826    | 17660    | 2        | 1266     | 2        | 29.2      | 1        | 209.4      | 1  |
| 이란   | 8399만2949    | 11364    | 3        | 514      | 3        | 13.5      | 3        | 61.2       | 2  |
| 한국   | 5178만0579    | 8086     | 4        | 72       | 6        | 15.6      | 2        | 13.9       | 5  |
| 스페인  | 4675만4778    | 5232     | 5        | 133      | 4        | 11.2      | 5        | 28.4       | 3  |
| 독일   | 8378만3942    | 3675     | 6        | 8        | 10       | 4.4       | 8        | 1.0        | 10 |
| 프랑스  | 6527만3511    | 3667     | 7        | 79       | 5        | 5.6       | 7        | 12.1       | 7  |
| 미국   | 3억3100만2651  | 2174     | 8        | 47       | 7        | 0.7       | 10       | 1.4        | 9  |
| 일본   | 1억2647만6461  | 1421     | 9        | 28       | 8        | 1.1       | 9        | 2.2        | 8  |
| 스위스  | 865만4622     | 1139     | 10       | 11       | 9        | 13.2      | 4        | 12.7       | 6  |

※ 확진자·사망자 수 출처: 한국 = 질병관리본부 3월 14일 / 나머지 = 존스홉킨스CSSE 3월 14일  
인구 : NAVER 집계, 2020년 기준. UNH-국가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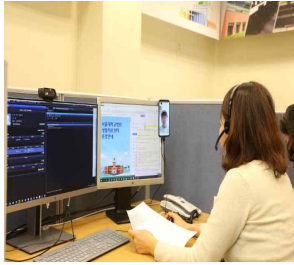
#### ● 감염병 전문학회들, 코로나19 약물치료 권고안 발표

대한감염학회 등 4개 국내 감염병 관련 전문학회는 '코로나19(COVID-19) 약물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버전1.2)'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현재 코로나19(COVID-19)에 대해서는 지지치료 이외에 확립된 항바이러스제 표준 치료방법은 없지만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대상은 확진환자인데, 특히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증도 이상이거나 임상 경과가 악화돼 가는 환자,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이는 중앙임상TF가 지난달 13일 제6차 화상회의에서 합의한 치료원칙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노출된 경우(고령자 포함)나 가족 간 접촉, 직장내(또는 다중이용시설) 밀접 접촉, 의료기관 내 접촉 등의 경우엔 예방적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0>)

● [코로나19 원격의료] ① 감염병 재난에 첫 시행...서울-지방 진료격차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 5천명 이상 집중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격의료'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은 경북 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병원 인자원) 이야기다. 서울대병원은 이곳에 입소한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상통화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이 배치됐지만, 감염병 환자는 진료 때도 의료진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됐다. 대신 서울대병원 본원 1층에 '모니터링본부'를 마련하고 의료진이 원격의료 체제에 돌입했다. 가장 기본적인 원격 의료행위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문진이다. 모니터링본부 간호사들은 매일 환자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 산소포화도나 체온은 환자가 스스로 재지만, 전날과 비교해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받게 될 검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부센터장은 "원격의료 자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79200017?input=1195m>)

● 음압병실 부족? '이것' 있으면 30분 만에 만든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의료원은 이동형 음압병실(ECU) 구축 장비를 활용해 음압병상 49개를 설치했다. 1개 병상이 아닌 11개 병실 전체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했다. 설치 후 차압 수준은 -6.2파스칼(pa)로 측정됐다. 음압병실 설치 최저기준인 -2.5pa보다 배 이상 안정적인 수준이다. ECU장비는 30분 만에 일반 병실을 감염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음압병실로 변경할 수 있다. 병실 입구나 복도에 설치하면 입원실 전체를 음압상태로 유지시킨다. 현재 국내 의료시설 중 ECU 장비를 도입한 곳은 서귀포 의료원뿐이다. 해당 ECU 장비는 미국 전문업체 '민티'(mintie)가 개발한 제품이다. 과거 '메르스'(중증 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내 대학병원에서 한 차례 시범 도입된 적이 있다. 다만 ECU 장비를 쓸 만큼 음압병실이 부족하지 않았던 탓에 이후 추가 도입이 흐지부지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v.daum.net/v/20200315070029044>)

정책대응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민주 "재난기본소득" vs 통합 "파격 감세"... 엇갈린 코로나 대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에서는 파격적인 '감세(減稅)'를 내걸고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야의 재난 기본소득이나 감세 정책 모두 충선을 겨냥해 급조된 느낌"이 강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종과 지역을 특정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과 지역에는 현금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3800&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0953800&cID=10201&pID=10200))

● 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통과...1인당 52만7천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천여만원을 포함한 모두 556억 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통과시켰다. 시의회 여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증액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여기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932449.html>)



● 박원순 시장 "음압병상 가동률 27.2%...연려 말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13일 "서울 시내 음압병상이 809곳 확보돼 있으며, 서울 시민 187명과 대구경북 지역 환자 포함해 226명이 치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로써 "음압가동률은 27.2%이며, 73% 가량의 병상이 비어있고 예비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달 말까지 음압병상을 추가로 늘리고,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600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태릉선수촌 시설 일부를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대 2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입소를 위한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감염내과 전문의 18명, 서울시 직원 등 53명을 배치해 매일 발열체크 등 자가 모니터링과 화상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313000494#a>)

● 병원·유치원·어린이집 근무 신청지 신도 모두 다 코로나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신청지 신도 중 병원·어린이집·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사회 복지생활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신청지 교인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5일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 명단 등의 자료를 확보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당시 확보한 신도 명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종사자 데이터를 비교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29만명), 어린이집(약 29만2000명), 유치원(약 5만6000명)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총 67만7000명 가운데 신청지 신도·교육생 4128명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이미 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신도 2564명과 교육생 598명 등 3162명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29343>)

● **외신이 주목한 한국의 대응..“적극적 검사가 가장 강력한 수단”**

이탈리아와 한국은 나란히 지난 1월 말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북부, 한국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등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달랐다. 이탈리아도 초반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증상 의심자로 검사 대상을 좁히는 한편 발병 지역을 폐쇄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급기야 지난 9일에는 6천만 전 국민의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반면에 한국은 바이러스 검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정면 대응 방식을 택했다. 바이러스 보균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 하루 평균 1만2천여건의 검사를 시행했다. 하루 최대 검사 능력은 2만건에 달한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시설도 전국 50여곳에 설치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세계발전센터’의 제레미 코넨드 선임연구원도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발병 규모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응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13060013105>)

● **“거리두기 쉽잖은 콜센터·요양원, 취약층 방역체계 장기전 대비를”**

최근 서울·대구 콜센터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들의 근무환경 영향도 크다. 온종일 밀집된 공간에 앉아 전화 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처럼 방역당국의 지침을 실행하기 어려운 취약층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불가능한 영역은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터”라며 “개인의 자발이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을 점검하고,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근무 형태 전환이나 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취약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선 유급휴가 등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일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환경도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달 4~9일 전국의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2184명을 대상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79.2%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집을 방문할 때 마스크와 소독제를 자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 없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온전하게 실행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38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2384.html))

●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지원로봇 투입...병상살균·발열감지**

서울디지털재단이 시민 발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음압병실을 살균하는 ‘의료지원 로봇’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에 12일부터 도입했다. 친환경 UV(자외선) LED(발광다이오드)를 쓰는 기능과 공기를 흡입해 살균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는 ‘살균로봇’은 음압병실에서 사용된다. ‘발열감지 로봇’은 서울의료원 출입구, 로비 등에서 일반 내원객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열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발열확인음을 받으라는 음성 안내와 함께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화면에 안내된다. ‘운송로봇’은 서울의료원 의료진·확진자가 사용한 의복과 의료폐기물 등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953800&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2_000953800&cID=10201&pID=10200))

● **코로나19 전염력 5주까지도 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병에 걸린 뒤 5주까지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병에 걸린 후 최장 37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를 배출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이들 안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 19 감염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들의 바이러스 배출시간은 예상보다 더욱 긴 것으로 확인됐으나 환자 본인의 기저 질환, 제한적인 샘플 등으로 인해 모든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 지속 시간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출처 :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KORMEDI)

(<http://kormedi.com/1313292/?%ec%bd%94%eb%a1%9c%eb%82%9819-%ec%a0%84%ec%97%bc%eb%a0%a5-5%ec%a3%bc%ea%b9%8c%ec%a7%80%eb%8f%84-%ea%b0%84%eb%8b%a4%ec%97%b0%ea%b5%ac/>)

● **코로나19에 경제도 ‘생존 모드’...“세계 GDP 10% 날아갈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감소→생산 감소→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기존 경로에 ‘인적 이동 제한’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코로나19의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9조 달러(1경800조 원) 줄어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세계 GDP가 88조 달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GDP의 약 10%가 날아가는 셈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사스, 메르스 등 과거 감염병 확산 시에는 주가와 금리가 13거래일 이내에 직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는 (13거래일이 넘은) 3월 들어서도 직전 수준보다 낮다”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동아일보(<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2/100139732/1>)



● **코로나, '반도체 코리아'도 덮치나... 삼성·하이닉스 이달만 시총 33조 증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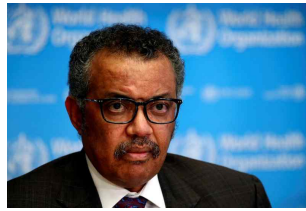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1, 2위이자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팬데믹이 가시화된 3월 들어서만 33조원이 날아갔다. 팬데믹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스마트폰 제조사 같은 세트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한 공급 차질을 우려해 반도체 사재기를 하지만, 추후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로 지갑을 닫아버리면 이들 기업도 더는 반도체를 사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관건은 1분기 이후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며 실물경기가 얼어붙고 돈이 돌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지금처럼 반도체를 사고 재고를 쌓아둘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시점이 되면, 격리된 상태에서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는 통신, 데이터센터, 단말기가 핵심인 만큼 반도체 쓰임새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4/20200314004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4/20200314004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WHO 사무총장, "유럽, 코로나19 진원지 됐다"

"유럽이 코로나19 진원지(epicentre)가 됐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은)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의 경험은 공격적인 진단과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미국 뉴욕본부 직원(약 3,000명)들에게 앞으로 3주간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했다. 워싱턴 디시(D.C)의 국제통화기금(IMF)도 직원 2천여명 모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금융공사(IFC) 등 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직원을 합치면 1만6천여 명에 달한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549.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2549.html))

●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정부 재난기금을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420억달러의 재난기금을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가 효과적인 긴급운영센터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검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공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한 곳에서 한국이 도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 달 안에 약 500만명을 상대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41034001&code=97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41034001&code=970100))

●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 2만명 넘어...하루새 3천497명 ↑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4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가 2만1천1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날 대비 3천497명 증가한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천 명 이상 증가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사망자는 175명 늘어 지금까지 1천441명인 것으로 파악된 사람과 접촉을 했다"면서 확진 판정을 알렸다. 잠정 파악됐다. 이처럼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 관료도 늘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이날 "며칠 전 나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사람과 접촉을 했다"면서 확진 판정을 알렸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15023547932>)

●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코로나19 발생에 맞선 한국 의료계 최전선에서 고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이마, 볼과 코에 밴드가 가득하다. 그 밴드는 영광의 배지다.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발원지인 우한을 제외하고, 최대규모 발생지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에 뛰어든 이들은 근무 교대전 이러한 밴딩 작업을 먼저 한다. 환자 치료를 위해 장시간 착용하게 되는 방호용품이 얼굴에 깊게 패인 쓰라린 상처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밴딩들이 그 상처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보호하게 된다. 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의 근로자들과 자원봉사 의료진팀의 이러한 밴딩은 자기헌신과 희생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약 200명의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은 자원해서 치료현장으로 온 간호사들이다. 그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는대만 30분이 걸린다. 간호사들이 의사보다 환자를 가까이서 치료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러한 밴딩을 하게 된다. 병원 대변인 정상민씨는 AFP에 "그들은 이 현장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AFP(<https://news.yahoo.com/korean-nurses-bandages-become-badges-honour-071601025.html>)

● 이탈리아 덮친 코로나, 핵심은 '고령화'가 아니다

1. 열악한 병상 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독일 8개, 프랑스 6개, 이탈리아, 스페인은 3개다. 병상수는 치명률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의료 관련 예산을 심각할 정도로 삭감한다. 그것은 곧바로 의료 수준의 '급전직하'로 이어졌다. 2. 롬바르디아에 밀집된 확진자: 이탈리아 경우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 환자의 73%가 발생했다. 3. 1번 환자 확진에 긴 시간이 걸렸다: 1번 환자는 중국 관련 저녁 식사 후 3주가 지난 뒤 검사, 다음날 입원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의 한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테스트를 받기 시작, 그리고 확진자는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4. 65세 이상, 전체 인구: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한다. 프랑스는 20.4%, 독일, 21.7% 한국은 15%다. 5. 2월 말 방학: 2월 말 유럽에는 2주간의 방학 시즌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에 휴가 갔던 많은 유럽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왔고, 3월 초부터 유럽 전역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6. 독일의 느긋함, 왜?: 독일의 사망자가 8명에 머무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확진 3675명, 치명률 0.2%). 독일은 병상 수, 의사 수, 공공병원 비율에서 모두 모범적인 수치를 가졌다. 또한 지역에 확진자가 몰려있지 않고, 고루 퍼져있는 것도 대처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7. 공공의료 예산 축소에 올인한 국가가 자초한 일: 프랑스의 상황도 국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정부는 공공 병원에 대한 예산 축소를 강행해 왔다. 실제로 2013년부터 6년간 정부가 축소한 병상 수는 1만7500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병상 수의 5.3%를 차지한다. 같은 바이러스의 침투에 0.2% vs. 7.2% 라는 극단적 치명률을 보여주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기억하자.

출처 : 오마이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61324>)

● 호주, 코로나19 충격에 14조원 경기부양책 발표...취약층에 현금지급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76억 호주달러(약 1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총 12만 명에 달하는 직업교육 훈련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에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2만5000 호주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600만명이 넘는 연금 수령자들과 실업자들에게 오는 31일부터 750호주달러(약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으로 호주 경제가 2분기에 최대1.5%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호주 연방 재무부는 올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호주 경제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후퇴를 맞게 된다. 호주 연방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제임스는 "파키지로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계획안이 호주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첫 단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시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312\\_0000953003](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312_0000953003))

● 코로나19 검사 기피, 일본이 이상해

팬데믹 코로나19가 일본 전역에서 스멀스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일본인은 그 진실과 마주하려 들지 않는다. 한국계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일본에서 100만 명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간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참 고마운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외려 이를 맹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판단을 했다. 손 회장은 두 시간 만에 어쩔 수 없이 지원 제의를 철회했다.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12월부터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우한 지역 밖 중국 인민과 다른 국가들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습하려 한 것이 화근이었다. 자신들의 힘으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이를 알렸다. 아이 때는 늦었다. 강한 전파력을 생각할 때 팬데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대다수 일본 국민은 올림픽이라는 국가부흥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발목을 잡을까봐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감염병 위험에 놓여 있어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염병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세계 모든 국가 간 이해와 협력으로 확산을 멈출 수 있다.

출처 : 프레스시안([http://m.pressian.com/m/m\\_article/?no=283137](http://m.pressian.com/m/m_article/?no=283137))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중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확진자 구분 | 분류 기준   |
|--------|---|
| 무증상    | • 아래조건 모두 충족<br>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
| 경증     |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br>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
| 중증     |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br>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
| 위중     |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br>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 변수           | 3   | 2     | 1         | 0         | 1       | 2       | 3    |
|--------------|-----|-------|-----------|-----------|---------|---------|------|
| 맥박(회/분)      |     | ≤40   | 41~50     | 51~100    | 101~110 | 111~130 | ≥131 |
| 수축기 혈압(mmHg) | ≤70 | 71~80 | 81~100    | 101~199   |         | ≥200    |      |
| 호흡수(회/분)     |     | ≤8    |           | 9~14      | 15~20   | 21~29   | ≥30  |
| 체온(°C)       |     | ≤35.0 | 35.1~36.0 | 36.1~37.4 | ≥37.5   |         |      |
| 의식수준         |     |       |           | 정상        | 목소리 반응  | 통증 반응   | 무반응  |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 위험정도    | 경증(저위험군)            | 중등중(중등도위험군)         | 중증(고위험군)     | 최중증(고위험군)  |
|---------|---------------------|---------------------|--------------|--|
| 점수      | 0~4점                | 5~6점                | 7점 이상        | 7점 이상  |
| 모니터링 빈도 | 6~12시간              | 1~2시간               | 지속           | 지속   |
| 조치사항    |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 CRRT, ECMO 필요<br>•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 변수     | 3     | 2      | 1         | 0         | 1         | 2       | 3    |
|--------|-------|--------|-----------|-----------|-----------|---------|------|
| 산소포화도  | ≤91   | 92~93  | 94~95     | ≥96       |           |         |      |
| 산소투여여부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         |      |
| 맥박     | ≤40   |        | 41~50     | 51~90     | 91~110    | 111~130 | ≥131 |
| 수축기 혈압 | ≤90   | 91~100 | 101~110   | 111~219   |           |         | ≥220 |
| 호흡수    | ≤8    |        | 9~11      | 12~20     |           | 21~24   | ≥25  |
| 체온     | ≤35.0 |        | 35.1~36.0 | 36.1~38.0 | 38.1~39.0 | ≥39.1   |      |
| 의식수준   |       |        |           | 정상        |           |         | 이상   |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         |  |
|---------|--|
| 고위험군 연령 | • 65세 이상   |
| 만성 기저질환 |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 특수상황    |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
| 입원환자    |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기준

| 지역(시도)    | 개소        | 기관명  |
|-----------|-----------|--|
| 서울        | 5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
| 부산        | 1         | 부산의료원  |
| 대구        | 7         |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
| 인천        | 5         |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
| 광주        | 2         |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
| 대전        | 4         |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
| 울산        | 5         |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
| 세종        | 1         | NK세종병원   |
| 경기        | 7         |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
| 강원        | 5         |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
| 충북        | 2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 충남        | 4         |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
| 전북        | 3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
| 전남        | 3         |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
| 경북        | 6         |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
| 경남        | 4         |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
| 제주        | 3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
| <b>총합</b> | <b>67</b> | 17개 시도, 67개소   |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http://www.mohw.go.kr/react/al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국민안심병원 현황]

2020. 3. 13. 기준

[서울시]

| 연 번 | 자치구     | 기관명                | 신청유형                  | 전화번호           |
|-----|---------|--------------------|-----------------------|----------------|
| 1   | 강남구     | 강남베드로병원            | 외래진료                  | 02-1544-7522   |
| 2   | 강남구     | 나누리병원              | 외래진료                  | 1688-9797      |
| 3   | 강남구     |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019-2114   |
| 4   | 강남구     | 하나이비인후과병원          | 외래진료                  | 02-6925-1111   |
| 5   | 강동구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440-8114    |
| 6   | 강동구     | 강동성심병원             | 외래진료                  | 1588-4100      |
| 7   | 강동구     | 중앙보훈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225-1111   |
| 8   | 강서구     | 나누리병원              | 외래진료                  | 1688-9797      |
| 9   | 강서구     |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1522-7000      |
| 10  | 관악구     | 심정병원               | 외래진료                  | 02-1588-3330   |
| 11  | 관악구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877-8875   |
| 12  | 광진구     | 건국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588-1533   |
| 13  | 관진구     | 혜민병원               | 외래진료                  | 02-2049-9000   |
| 14  | 구로구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626-1114   |
| 15  | 구로구     | 우리아이들병원            | 외래진료                  | 02-858-0100    |
| 16  | 금천구     | 희명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804-0002    |
| 17  | 노원구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 02-970-8000    |
| 18  | 노원구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외래진료                  | 02-950-1114    |
| 19  | 노원구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 외래진료                  | 02-970-2114    |
| 20  | 도봉구     | 한일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901-3114    |
| 21  | 동대문구    | 경희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958-8114    |
| 22  | 동대문구    | 삼육서울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577-3675   |
| 23  | 동대문구    | 서울성심병원             | 외래진료                  | 02-966-1616    |
| 24  | 동작구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870-2114    |
| 25  | 동작구     | 중앙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6299-1114   |
| 26  | 서대문구    | 동신병원               | 외래진료                  | 02-396-9161    |
| 27  | 서대문구    |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599-1004   |
| 28  | 서초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588-1511   |
| 29  | 성동구     | 한양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290-8114   |
| 30  | 성북구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920-5114    |
| 31  | 성북구     | 성북우리아이들병원          | 외래진료                  | 02-912-0100    |
| 32  | 송파구     | 경찰병원               | 외래진료                  | 02-3400-1114   |
| 33  | 양천구     | 메디힐병원              | 외래진료                  | 02-2604-7551   |
| 34  | 양천구     |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650-5114   |
| 35  | 양천구     | 홍익병원               | 외래진료                  | 02-2693-5555   |
| 36  | 영등포구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1661-7575      |
| 37  | 영등포구    | 명지성모병원             | 외래진료                  | 1899-1475      |
| 38  | 영등포구    | 새길병원               | 외래진료                  | 02-1522-0075   |
| 39  | 영등포구    | 성애병원               | 외래진료                  | 1811-8114      |
| 40  | 영등포구    | 영등포병원              | 외래진료                  | 02-2632-0013-8 |
| 41  | 영등포구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829-5114    |
| 42  | 용산구     |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709-9114    |
| 43  | 은평구     | 분서부병원              | 외래진료                  | 02-3156-5000   |
| 44  | 은평구     | 청구성심병원             | 외래진료                  | 02-353-5511-9  |
| 45  | 종로구     | 강북삼성병원(3.16.부터 운영)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001-2001   |
| 46  | 종로구     | 서울대학교병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1588-5700   |
| 47  | 종로구     | 서울적십자병원            | 외래진료                  | 02-2002-8000   |
| 48  | 종로구     | 세란병원               | 외래진료                  | 02-737-0181    |
| 49  | 중구      | 국립중앙의료원            | 외래진료 및 입원             | 02-2260-7114   |
| 50  | 중구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외래진료                  | 02-2270-0114   |
| 51  | 중랑구     | 녹색병원               | 외래진료                  | 02-490-2000    |
| 52  | 중랑구     | 동부제일병원             | 외래진료                  | 02-437-5011    |
| 총합  | 22개 자치구 | 52개소               | 외래 29개소, 외래 및 입원 23개소 | -              |



| 지역(시도) | 기관명  |
|--------|--|
| 부산(33) |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목기념봉사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새우리남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우리원병원(3.16.),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간양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루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
| 인천(23)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담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내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무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
| 대구(16) |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광명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서대구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참조은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
| 광주(5)  |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
| 대전(6)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한한국병원, 유성선병원  |
| 울산(9)  |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
| 경기(73)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일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시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안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우대학교병원*, 분당치생병원*, 분당척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어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힐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세로운병원, 예손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웰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촌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제이에스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자생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
| 강원(7)  | 강릉고려병원, 강릉야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흥천야산병원  |
| 충북(9)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
| 충남(12) |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
| 전북(10) |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
| 전남(12) | 고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
| 경북(15) |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바른유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모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
| 경남(29) |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대우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자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
| 제주(4)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
| 총합     | 15개시도 263개소  |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3)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행황 (<https://www.kha.or.kr/>).

[붙임4]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 연번 | 자치구  | 선별진료소                  | 전화번호                       | 연번 | 자치구  | 선별진료소                     | 전화번호           |
|----|------|------------------------|----------------------------|----|------|---------------------------|----------------|
| 1  | 강남구  | 강남구보건소*                | 02-3423-5555               | 38 | 서초구  | 서초구보건소*                   | 02-2155-8093   |
| 2  | 강남구  | 삼성서울병원*                | 02-3410-2114               | 39 | 서초구  |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02-1588-1511   |
| 3  | 강남구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 02-2019-3114               | 40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02-570-8000    |
| 4  | 강동구  | 강동경희대학교의과대학*           | 02-440-7000                | 41 | 성동구  | 성동구보건소*                   | 02-2286-7172   |
| 5  | 강동구  | 강동구보건소*                | 02-3425-8565               | 42 | 성동구  | 한양대학교병원*                  | 02-2290-8114   |
| 6  | 강동구  | 성신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 02-2224-2358               | 43 | 성북구  | 성북구보건소*                   | 02-2241-6022   |
| 7  | 강동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02-2225-1100               | 44 | 성북구  |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입병원) * | 02-1577-0083   |
| 8  | 강북구  | 강북구보건소*                | 02-901-7706<br>02-901-7704 | 45 | 송파구  | 송파구보건소*                   | 02-2147-3478-9 |
| 9  | 강서구  | 강서구보건소*                | 02-2600-5868               | 46 | 송파구  |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 02-3010-3114   |
| 10 | 강서구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 02-1522-7000               | 47 | 송파구  | 경찰병원*                     | 02-3400-1124   |
| 11 | 관악구  | 관악구보건소*                | 02-879-7131                | 48 | 양천구  | 양천구보건소*                   | 02-2620-3856   |
| 12 | 관악구  | 관악구보건소 신시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 02-879-7241                | 49 | 양천구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02-1566-6688   |
| 13 | 관악구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02-1877-8875               | 50 | 양천구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 02-1666-5000   |
| 14 | 광진구  | 광진구보건소*                | 02-450-1937                | 51 | 영등포구 | 영등포구보건소*                  | 02-2670-4953   |
| 15 | 광진구  | 광진구보건소 지양보건지소          | 02-450-7090                | 52 | 영등포구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02-829-5114    |
| 16 | 광진구  | 건국대학교병원*               | 02-1588-1533               | 53 | 영등포구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02-1661-7575   |
| 17 | 구로구  | 구로구보건소*                | 02-860-2003                | 54 | 영등포구 | 상애의료재단성애병원*               | 02-840-7114    |
| 18 | 구로구  |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 02-860-2018                | 55 | 영등포구 | 명지성모병원                    | 02-829-7800    |
| 19 | 구로구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 02-2626-1114               | 56 | 용산구  | 용산구보건소*                   | 02-2199-8371-4 |
| 20 | 금천구  | 금천구보건소*                | 02-2627-2717               | 57 | 용산구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02-709-9114    |
| 21 | 금천구  | 독산보건소                  | 02-2627-1967               | 58 | 은평구  | 은평구보건소*                   | 02-351-8640    |
| 22 | 금천구  | 희망병원                   | 02-2219-7231               | 59 | 은평구  |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 02-3156-3022   |
| 23 | 노원구  | 노원구보건소*                | 02-2116-3300-4             | 60 |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02-300-8060    |
| 24 | 노원구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02-970-8000                | 61 | 은평구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02-958-2114    |
| 25 | 노원구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02-950-1114                | 62 | 종로구  | 종로구보건소*                   | 02-2148-3557   |
| 26 | 도봉구  | 도봉구보건소*                | 02-2091-4483               | 63 | 종로구  | 강북삼성병원*                   | 02-2001-2001   |
| 27 | 동대문구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83               | 64 | 종로구  | 서울적십자병원                   | 02-2002-8650   |
| 28 | 동대문구 | 경희대학교병원*               | 02-958-8114                | 65 | 중구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 02-2270-0114   |
| 29 | 동대문구 | 삼육 서울병원*               | 02-1577-3675               | 66 | 중구   | 중구보건소*                    | 02-3396-5181   |
| 30 |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02-920-9118-9              | 67 | 중구   |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진료소             | 02-3396-5181   |
| 31 | 동대문구 | 서울성삼병원                 | 02-966-1616                | 68 | 중랑구  | 중랑구보건소*                   | 02-2094-0800   |
| 32 | 동작구  | 동작구보건소*                | 02-820-9465                | 69 | 중랑구  | 서울의료원*                    | 02-2276-8333   |
| 33 | 동작구  |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 02-832-9404                | 70 | 서초구  | 서초 소방학교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
| 34 | 동작구  | 보리매병원*                 | 02-870-2114                | 71 | 송파구  | 잠실주경기장                    |                |
| 35 | 마포구  | 마포구보건소*                | 02-3153-9037               | 72 | 은평구  | 서울시립은평병원                  |                |
| 36 | 서대문구 | 서대문구보건소*               | 02-330-8726                | 73 | 강서구  | 이대서울병원                    |                |
| 37 | 서대문구 |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02-1599-1004               |    |      |                           |                |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12)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